



한국 재즈계를 이끄는 두 여성
웅산과 정말로

불교와 인연 깊은 두 여성이 재즈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한국 재즈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두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재즈 뮤지션 정말로 씨와 웅산 씨는 특이한 이름과 경력이라는 공통 점과 더불어 각자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도대체 재즈와 불교는 무엇이 통하는 것일까?

는 만큼 느끼고 깨달은 만큼 나오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더 깊이와 아름이 더해지는 음악이죠. 한국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뮤지션 보다는 그런 깊이를 전달하는 뮤지션으로 남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포부 속에서 재즈의 자유정신과 불교의 해탈이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JAZZ 깨닫는 과정이죠!

"자유...해탈에 이르는 선율"

국내 재즈 뮤지션 중 가장 많은 매니아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여성 재즈뮤지션 정말로(31, 본명 정수월·사진 아래, 9월 1일, 압구정 연습실에서 만난 그녀에게 왜 재즈를 시작하게 됐느냐고 묻자, 그는 "자유스럽고 재밌잖아요"라고 짧게 한마디로 답한 채 톡톡한 웃음을 흘린다.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에는 자신감이 넘쳤던 그는 중·고등학교 중창단 활동부터 대학시절 통기타 가수 아르바이트, 93년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은상 수상 등의 경력을 쌓아갔다. 통기타 가수와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주로 포크음악을 듣고, 부르던 그는 대학 2학년이 돼서야 재즈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의 색소폰 연주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고 싶다는 실험정신으로 재즈에 탐버들었죠."

그는 재즈를 배우고 싶다는 일념으로 이태원의 재즈 라이브 클럽 올 댓 재즈(All that Jazz)에 찾아가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재즈를 마땅히 배울 곳이 없었기에 그곳의 뮤지션들은 그에게 유학을 권했다. 그래서 97년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음대에서 스캇과 린국 등 재즈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며 1년여의 유학생활을 했다.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무렵이다. 본래 천주교 신자였던 부모님은 딸 셋을 낳고 천일동안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려 지금의 막내 남동생을 보게 됐다. 이 계기로 불교에 입문한 그의 어머니는 기복신앙이 아닌 수행으로서의 불교에 더욱 심취했다. 귀국 직후, 신심이 돈독한 어머니의 '효도 한번 하라'는 권유로 그는 고향인 부산의 한 사찰을 찾았다. 그곳의 법사님이 '지금 니 팔을 만지면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라고 던진 한마디를 화두로 삼고 꼬박 한 달간을 면벽수행 했다. 그는 그때의 수행을 '정신적인 오물들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고 회상한다.

"잠선을 하며 그 전까지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자만과 고집에 가득 차 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하심'을 배운 거죠. 선 수행을 하면서 화두의 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써는 지난 3월, 프로젝트 형식의 앨범인 3집 '뽕꽃자다'를 발표했다. 한국적 재즈를 시도했다는 평을 들은 이번 앨범은 듣는 이로 하여금 명상을 하듯 그의 음색에 빠져드는 느낌을 준다. 요즘 그는 앨범활동과 더불어 오는 12월, 2004년도 다이어리와 함께 선보일 새로운 시도의 앨범 작업에도 한창이다.

"제가 있어 음악과 생활은 둘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음악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음악 역시 제 삶의 일부니까요. 하루 하루 삶 속에서 철학이나 불법을 깨달아 가듯이 재즈도 내가 아

"여백과 쉼"

4월 저녁, 청담동 재즈클럽 아누스에서 웅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팔뚝에 휘휘 두른 열주였다. 샤워할 때도, 방송을 위해 드레스를 입을 때도 늘 열주를 몸에 지닌다는 재즈 뮤지션 웅산(29, 본명 김은영·사진 위, 18살 때 출가했다) 환속한 특이한 이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왜 출가했었느냐?'를 가장 먼저 질문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제가 '출가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마치 청소년기의 일탈처럼 그려지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너무나 자연스럽게 절로 향했다는 것에 대해 타인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않은 양했지요."

당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향한 곳은 단양의 구인사. 그의 말대로 '마음 따라' 간 구인사 선방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3일정 도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결국 3일 기도는 2년 가까운 출가생활이 되 버렸다. 여기에는 7살 때 <반야심경>을 암송하게 하고, 저녁시간에 은 가족과 함께 참선과 관음경근을 할 정도로 수행심이 깊었던 아버지의 영향도 컸다.

어느 날 참선 중에 깜짝 졸음이 들러와 죽비에 맞고 합장을 하며 내뿜은 맑은 '관세음보살'이 아닌 한영애의 '조물'이라는 노래였다. 그제서야 그는 속세, 공부, 음악에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걸 깨닫게 됐다. '미련이 남았다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부딪치려 했었죠."

그 뒤 검정고시를 거쳐, 원주 삼지대 중국어통역과에 입학해 해 비메탈 밴드 '돌린스'의 최초 여성보컬로 대학가요제를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이렇다할 활동 없이 슬럼프에 빠졌고, 그 무렵 듣게 된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의 'I'm a fool to want you'는 그를 재즈의 길로 이끌었다.

출가했을 당시 구인사 무안스님이 지어주신 '웅산(熊山)'을 예명으로 그는 9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즈뮤지션으로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98년부터 일본의 재즈클럽에서도 공연을 하게 됐고, 얼마 전부터는 예술대학과 재즈아카데미 등 강단에 섰다. 그리고 올해 11월말 쯤, 총 12곡의 스탠다드 재즈곡이 담긴 그의 첫 앨범이 일본에서 발매된다. 한국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선보일 예정이다.

"재즈는 구속하지도, 율아매지도 않은 여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불교의 공(空)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만의 느낌과 함께 한국인 특유의 감성인 '한(恨)'을 담은 한국적인 재즈를 해보고 싶어요."

글=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III-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5주기 추모제
----- 104주년 탄신제
○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 15) 10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 5) 10시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제
2003년 10월 7일(화)10시